

# 육계의 케이지 사육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극복

□ 취재/함경숙 기자

**전** 국적으로 각 업종별로, 지역별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는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친목단체 성격이 짙은 계(契) 등 갖가지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 양계인들 사이에서도 현대 산업사회에서 농업이 소외당하고 경시되는 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을 근본정신으로 '우리 이익은 내가 스스로 찾는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정부분회도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지역의 육계 생산자들이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찾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탄생되었다"고 원용



△원용주 분회장

주 분회장은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70년대 초기만 해도 의정부 지

역을 중심으로 양계업이 발달되었는데 75년에는 자칭 의양양계협회를 조직하여 산업발전에 많은 공

현을 해 왔으나 그 당시는 산란계 사육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80년대초 전국을 휩쓴 ILT로 사육농가의 90%정도가 부도나고 불황이 겹쳐 이 조직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86년 육계사육자들을 주축으로 친목회 성격으로 다시 조직을 정비, 87년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약 1,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사무실도 마련하고 본회에 의정부 분회로 정식 가입하였다.

지난 87년부터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사료와 병아리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결과 8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육계가격이 호황인 덕분에 지난해 7월부터는 병아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병아리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90년 2월부터는 사료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전체 생산비중 14~15% 정도의 원가절감을 꾀해 나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의정부·양주지역은 80~100가구 정도의 사육농가가 130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육계 호황으로 과거에 부도났던 농가들도 다시 참여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의정부분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법에 의해 육계를 케이지에서 사육하고 있다.

지리적인 여건상 한수 이북이기

때문에 혹한기에 사육하기가 곤란하고 연료비 소모와 인건비 소모가 많아 생산비가 많이 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70년대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케이지 사육이다.

좁은 땅에서 사육수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어 경제적이지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연료비가 적게 들고 사료허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한다.

더구나 요즘처럼 질병이 극성을

### 의정부 육계분회 회원명단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0-2

○(0351)43-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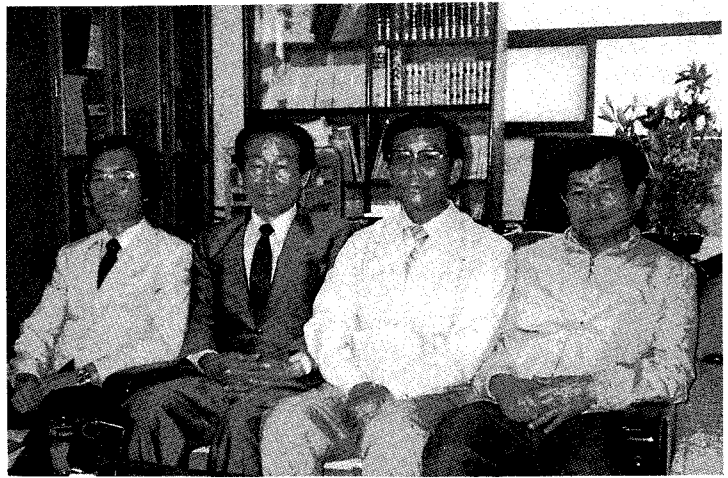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원용주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273-1	40-6146
부회장	권오윤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686	866-1393
고 문	전영기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40-6078
감 사	유재규	양주군 회천읍 옥정 1리 283	866-2118
이 사	윤세각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26	40-2174
〃	홍상배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82	40-3355
총 무	유재룡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284-2	41-1307
회 원	박명완	의정부시 가능 1동 13-4	2-6423
〃	김영관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238	62-0094
〃	김영세	양주군 백석면 연곡 1리 16	40-2811
〃	홍순호	의정부시 의정부 4동 7-2	43-6622
〃	이연학	양주군 광적면 효촌 2리 128	40-1908
〃	한상익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821	866-1035
〃	이재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199	866-0804
〃	유재한	양주군 은현면 용암 1리 846	866-1057
〃	유근홍	의정부시 의정부동 221-47	2-3059
〃	한준희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524-1	866-2591
〃	이충걸	양주군 주내면 삼승 1리 111	40-7555
〃	박용구	의정부시 녹양동 112-5	43-2981
〃	김장훈	양주군 회천읍 회암 2리 475	866-3321
〃	채해석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36-3	40-0336
〃	김성룡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7	40-1814
〃	노화식	의정부시 자일동 384	41-0443
〃	한상배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19-1	40-6230
〃	정태성	포천군 가산면 금현 2리 700-7	866-2141

부리는 상황에서 곡시듬과 호흡기 질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하지만 평사사육에 비해 인력이 3배 정도 더 필요해 인력난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2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회원농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권오윤 부회장은 말한다.

의정부분회에 가입한 회원은 5~7만수 규모가 5~6명이고 2~3만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인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를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 등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최



△왼쪽부터 유재규 감사, 원용주 분회장, 권오윤 부회장, 윤세각 이사

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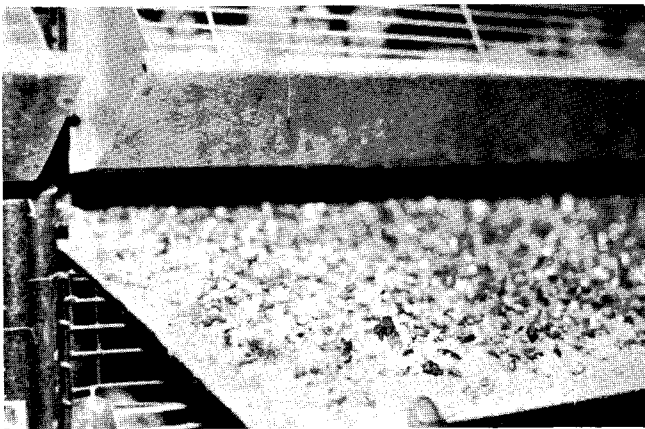
특히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질 잔류문제가 법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육계업도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유통과정에서 빚어지는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의정부분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아리 현금구입, 사료공동구매, 공동출하판매 등은 거세지는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작업이라고 본다.

호황때 불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매사를 임하고 있는 의정부분회의 운영방침은 다른 양계인들에게 의식전환을 꾀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소외당하고 골치아픈 존재(?)로서 취급받던 농업도 '농민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요'라는 말이 언젠가는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슴에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양계**



△의정부·양주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육계의 케이지 사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동판을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난이 다른 곳보다 심각한 편이다.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고급화를 요구하는 추세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부위별 가격차등제를 두는 등 질적인 향상에 치중하고 있는데 닭고기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더욱이 축산물의 항생